

【한국 추방 기】

다케시마 문제의 열쇠를 쥐는 울릉도의 진실

2011 년 8 월 5 일 下條正男

나는 지난 8 월 2 일부터 3 일에 걸쳐 자민당의 영토 특명위원회에 소속된 新藤義孝 (신도요시타카), 稲田朋美 (이나다도모미) 두 중의원 의원과 佐藤正久 (사토마사히사) 참의원 의원과 함께 울릉도에 갈 예정이었다. 울릉도는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하는 다케시마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다케시마 문제의 발단도 이 섬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8 월 1 일 미명 한국에서 추방되었다.

「일본 우익 교수 몰래 입국 적발, 추방」

그러나 이번에 내가 한국에 간 것은 의원들과의 울릉도 방문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1907 년에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뿌리가 된 다쿠쇼쿠 대학교 (拓殖大学) 경성분교(京城分校)가 서울에 개설되어 있었으며 그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열람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8 월 1 일자 조선일보는 「울릉도 방문 밝힌 일본의 우익 교수, 몰래 입국 적발, 오늘 새벽 추방」이라는 표제로 그 전말을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 관계자는 「下條(시모조) 교수는 원래 일본의 의원들과 함께 8 월 1 일, 김포 공항을 통해 방한할 예정 이었으나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일정을 바꿔 입국하려다가 발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다.

나는 그런 발언도 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도 없다. 내가 7 월 31 일에 나리타(成田)발 마지막 비행기 OZ105 편에 탑승한 것은 이번 한국행 경비가 개인 부담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싸게 할인 항공권을 구입하기 위한 일정이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부연 해서 말하자면 7 월 30 일과 7 월 31 일은 근무지인 대학교의 오픈캠퍼스가 개최되어 입시 상담을 담당하는 나로서는 마지막 비행기 밖에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항공권의 예약도 新藤義孝(신도요시타카)의원 들이 울릉도 방문을 발표한 7 월 15 일 이전에 나는 이미 끝낸 상태였다. 다만, 31 일 오픈캠퍼스의 교무를 끝내고 대학교가 있는 하치오지(八王子)부터 나리타(成田)공항으로 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31 일의 입시 상담을 동료에게 부탁하기로 한 것 뿐이었다. 내가 「갑자기 일정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입시 상담에 관한 학교 업무

일정뿐일 것이다.

지진피해로 잊혀진 민주당 의원의 「다케시마는 한국령」 선언

그럼 가깝고도 멀어져 버린 울릉도에는 무엇이 있고 지금 이 시기에 울릉도 방문을 실시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것은 위기감 때문이었다. 동일본 대지진피해 직전, 민주당의 土肥隆一(도이류이치) 의원이 한국 국회에서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라고 선언한 것은 문제가 되었다. 土肥(도이)의원은 내용을 몰라서 선언했다고 변명했지만 서울 시내의 신에덴 교회에서도 土肥(도이)의원 스스로가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었다.

2006 년 5 월 당시 민주당 간사장이었던 鳩山由紀夫(하토야마유키오)씨도 한국의 한명숙(韓明淑)국무총리에게 「다케시마 문제는 일본의 외교적 실패」라고 발언해서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라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더욱이 한국의 동북 아시아 역사 재단의 정재정(鄭在貞)이사장에 의하면, 2010 년 8 월 한국 합병 100 주년의 「간(菅)수상 담화」는, 한국 측이 松下政経塾(마츠시타 정경숙)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조선왕실 의궤」의 한국 인도 문제도 간 수상

담화에서 비롯되었으며, 원래 조선왕실 의궤는 87 부 167 권인데 궁내청 서릉부(宮內序 書陵部)가 소장한 조선본 69 부 1038 권이나 근거도 없이 넘겨주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당 정권의 대 한국 정책은 일본의 국가 주권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으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사실 민주당 정권을 “상대하기 쉽다”고 본 한국 측은 다케시마 문제에 있어서 강한 자세로 나와, 다케시마에 해양과학 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는 한편, 주민 숙사를 증축하고 헬리포트 개수공사를 진척시키는 등 불법 점거의 기정사실화를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5 월 24 일 한국 독도 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의 강창일(姜昌一) 위원장은 쿠나시리도 (国後島)를 전격 방문하는 등 일본 측에 도발적인 자세를 보였다. 강창일 위원장은 8 월 3 일 독도 영토수호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일본의 우익 인사나 단체」의 한국 입국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촉구하였으며, 필요하다면 일본과 영토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한국 각지의 전자신문).

한편,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영토문제가 모두 일본의 영토적 야심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사실은 작년 7 월 새로이 편찬된 고등학생용

역사교과서「한국사」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민주당의 서투른 외교가 초래한 결과

그러나 이러한 역사 사실에 의거하지 않은 역사인식은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에도 공통되어 있으며, 작년 9 월의 첨각제도(尖閣諸島) 부근에서의 중국어선과의 충돌사고나 11 월 러시아의 메도베제프 대통령의 쿠나시리도(国後島) 방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일청전쟁(日淸戰爭) 때 일본이 첨각제도(尖閣諸島)를 빼앗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탈환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다케시마 침탈 과정이다. 1953 년 한국 민간인이 다케시마에 상륙한 것을 발단으로 지금까지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첨각제도 부근에서의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렇듯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외교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안 중국은 그 후,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사제도(南沙諸島)나 서사제도(西沙諸島)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 이러한 동 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일본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자민당의「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소속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목적은 다케시마 문제 만을 시야에 넣은 것은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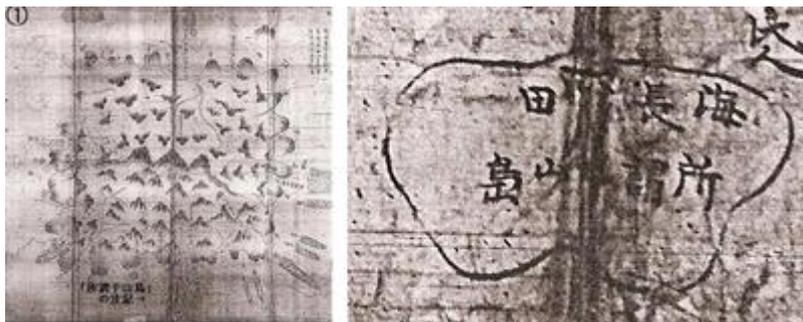
울릉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진정한 이유

그럼 무슨 목적으로 울릉도를 방문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다케시마 문제의 발단이 울릉도에 있었기 때문이다. 1618년 막부(幕府)의 허가를 받은 鳥取藩 米子(요나고)의 大谷(오오야), 村川(무라카와) 양가는 울릉도에서 어업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1693년 조선의 어민들 즉, 안용복(安龍福)과 박어둔(朴於屯)들과 조우하여, 그들을 국경을 넘었다는 증거로 米子(요나고)에 데리고 온 사건이 생겼다. 그 때 안용복은 막부의 명령으로 鳥取藩에서 対馬藩에 이송되어 対馬藩을 통해 조선에 송환됐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후 안용복이 隱岐島에 나타나서 「우산도(于山島)는 일본에서 말하는 松島(현재의 다케시마)다」라고 한 후, 鳥取藩으로 향했다. 鳥取藩에서는 안용복을 추방했는데 귀국 후 안용복은 「鳥取藩主와 교섭하여 울릉도와 현재의 다케시마(우산도)가 조선령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진술조서의 일부가 『숙종실록』에 기재된 것으로 한국 측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다케시마는 한국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용복이 우산도라고 한 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이번 울릉도

방문의 목적도 그 안용복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울릉도 도형」(사진 1)이라는 지도이다. 이것은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조선측이 울릉도의 조사를 시작해서 작성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박석창(朴錫昌)등이 1711 년에 작성한「울릉도 도형」이 내력도 확실하여 그것을 보면서 울릉도를 일주하는 유람선의 선상에서 그 지도에 명기되어 있는 지형을 확인할 예정이었다. 「울릉도 도형」에는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된 작은 섬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1) 「 울릉도 도형 」 (왼쪽)내에는, 「 소위 우산도 」 라고 하는 주기(오른쪽)이 있는
출소:Web 독도 문제연구소.

이러한 작업은 이미 2006 년 島根縣의 다케시마 문제연구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 「소위 우산도」는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니고 울릉도 동쪽의 약 2Km 지점에 있는 죽서(竹嶼)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으로 그 사실이 재확인되면 한국측에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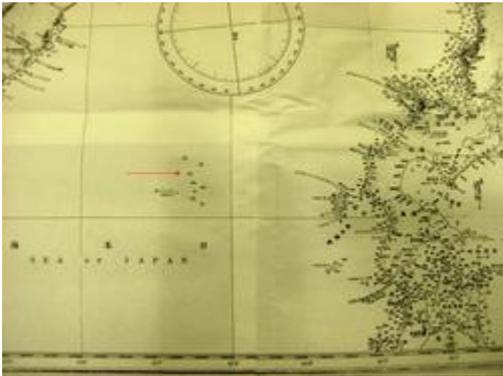
이번 8 월 1 일자 조선일보에서는 「下條(시모조)는 「독도의 옛이름인

우산국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동쪽에 있는 다른 부속 섬을 가리킨다」는 주장을 펴 왔다」고 쓰여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확인되면 그것이 증명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모순투성이의 독도 박물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논박한다」고 주장하는 독도박물관에도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시 중인『조선 수로지(朝鮮水路誌)』가 그 중의 하나이다.

한국 측은 일본이 편찬한 『조선 수로지』(제 4 편「조선 동안」)에 울릉도와 **리안콜트**(Liancourt)열암(현재,다케시마)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일본이 **리안콜트**열암을 조선령이라고 인정한 증거라고 한다. 하지만 잘 읽어 보면 일본해 해저의 암초를 가리켰을 뿐이며 **리안콜트**열암 외에도 **와이우오다**암이 명기되어 있다. 그럼 그 **와이우오다**암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北海道의 옆(사진 2)에 있다고 본다. 『조선 수로지』에서는_ 일본해의 암초를 기술하고 있을 뿐이며, **리안콜트**열암이 한국령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 수로지』 제 1 편의 「형세(形勢)」에서는 조선반도를「동경 124 도 30 분에서 동경 130 도 35 분에 이른다」라고 명기하여 있기 때문인데 다케시마는 동경 131 도 55 분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2) 빨간 화살표부분이 와이오다도 자료:필자제공

그 때문에 당연히 다케시마를 한국령에 포함 할 수가 없다. 독도 박물관을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고문헌이나 고지도의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다케시마를 한국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시도도 입국 거부에 의해서 실현되지 못했다. 지금의 나에게 울릉도는 가깝고도 먼 섬이 되어 버렸다.